

#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Christian Educational Approaches

Junghee Kim  
(Mokwon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must change to a more positive one as a way to resolve social problems caused by aging. And this study proposes understanding and education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s one of the measures.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The research aims to achieve its purpose through the following contents and method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elder abuse that occurs in old ag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in the context of aging. One of the causes of elder abuse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hat are the rights of the elderly? To this end, the text explains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ccording to UNESCO, as well as the policy on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Korea. Based on this,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elderly was argued. This is because an increase in awarenes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mprov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the church is also affected by the aging phenomenon.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church should also take an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it was emphasized that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elderly should be approache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Results/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proposes three aspects of christian human rights for the elderly. First, there is a need for self-dignity education for the elderly. Second, it is necessary to learn about and empathize with the lives of the elderly in order to recognize and respect their right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Third, education on mutual respect was proposed as a means to alleviate conflicts between the elderly and other generations, and to promote harmony and respect for rights. It is believed that thi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bridging the generation gap caused by aging. Unfortunatel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address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education, as it primarily focuses on theoretical proposals. Therefore,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will continue to be conducted to develop specific alternatives aimed at enhanc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 Key Words

elderly human rights, self-dignity education, empathy education, respect education

##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교육적 접근

김정희\*\*  
(목원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한 방안으로 노인에 관한 이해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방안 중 하나로써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오늘날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노년에 발생하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노인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NESCO에서 말하는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부터 한국의 노인 인권에 대한 정책까지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노인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도 고령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교회 내 노인 성도의 분포도가 높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교회도 노인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노인인권교육을 제안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론 및 제언**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노인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적 노인 인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기 존엄성 교육이다. 둘째, 타 세대의 노인에 대한 존경과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써 노인의 인생을 배우고 공감하는 교육이다. 셋째, 노인 세대와 타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와 조화를 통한 권리 존중을 위해 상호존중교육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는 이론적인 제안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방법론적인 접근 교육 등은 다루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기독교 인권교육에 관한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되는 등 노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 〈 주제어 〉

노인인권, 자기존엄성 교육, 인생공감교육, 상호존중교육

## I. 들어가는 말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고령화 현상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여전히 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과거에 머물고 있다. 노인을 피동적인 존재이자 소모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고정관념(negative stereotype)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노인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국가인권위원회 편, 2009)에 대해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 청년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은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회가 “생산성”을 중심으로 세대의 중요성을 나누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경제성장 중심 환경에서 주목받는 존재는 생산성이 높은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세대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은퇴로 인해 생산성과 가치가 떨어지는 노인은 생산인구로부터 제외되었고, 사회적, 경제적 부담감을 가중하는 소비적인 존재이자 소모적인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김성은, 1997, 312). 이는 자연스럽게 노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멀어지게 했다. 그런데 노인이 단순히 사회적 관심을 덜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결여는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할 고령 노인의 주거, 의료, 부양에 대한 무게가 가중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지영, 2005; 김주현, 2009; 김정희, 2012, 2017; 이선희·김미리·정순돌, 2019; 한정란, 2002).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기보다는 이를 부채질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다 더욱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노인 성도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이는 비단 표면적일 뿐 본질적으로 노인이 처한 현실에 관한 관심과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경남, 2019).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인권(人權)이라고 명명한다(우국희, 2020; Sweet, 2003; 임춘식·윤지용, 2012에서 재인용). 노인도 한 인간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가 노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인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노인 인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기독교적 관점에서 노인 인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안에서 노인에 관한 관심과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재 노인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노인 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자 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교육이 지향해야 할 노인인권교육을 자기존엄성교육, 인생공감교육, 상호존중교육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 II.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

### 1. 노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실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할 때, ‘효’는 보편적인 정서이다.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정 윤리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효에 근거한다.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에 나오는 부자자효(父慈子孝)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상호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대성 편저, 1980, 202).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섬김은 일방적인 책무가 아닌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이 전제되어야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김정희, 2019). 즉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녀를 주체로써 세우는 양육을 통해 존경과 신뢰받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 신뢰감,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효 사상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었으며, 노인 공경에 근거한 복지정책의 시행에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들어오면서 노인을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자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시대적 사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가족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효가 강조하는 노인의 가치와 역할이 퇴색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노원석, 2011, 264-265; 김정희, 2018, 140; 이선희·김미리·정순돌, 2019, 826). 즉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역할과 효율적 능력, 기능적 가치를 상실한 노인(김재정, 2014, 2; 김정준, 2017, 157)을 문제해결의 ‘주체’가 아닌 문제해결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은 노인을 수동적이고 쓸모없는 열등한 존재로 치부하고, 노인에 대한 소외와 차별, 고독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며(권금주, 2016, 39; 김주현 외, 2011, 249), 최종적으로는 노인학대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한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경제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바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 사회 내 노인의 인권침해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한국 사회의 노인학대 현황을 통해 노인 인권침해의 요소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표 1). 노인학대에 대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노인 학대와 관련한 신고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접수율만을 본다면, 그 숫자가 전체 노인인구 비율과 대비했을 때 매우 미미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조사한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접수율의 통계 결과만을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며, 고로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잠재적 노인 학대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노인 대부분이 은퇴 후 경제적 불안정성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생활환경에서 찾아봐야 한다.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학대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보다는 침묵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가정 자체가 지닌 폐쇄성과 은폐성도 노인의 인권침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연도별 증감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노인학대 신고접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볼 때,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의 실태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사실이다(표 1).

〈표 1〉 노인학대에 대한 연도별 증감표

연도	65세 이상 인구수[명]	총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	신고접수 건수
2007	4,810,363	9.9	2,312
2013	6,250,986	12.2	3,520
2018	7,650,408	14.8	5,188
2020	8,496,077	16.4	6,259

출처: KOSIS, 2022 노인학대현황: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노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사회는 아동이나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노인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대응에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을 비생산적인 존재로 치부하여 수동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개발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김주현 외, 20

11). 단순히 노인의 기본권이나 생존권과 같은 노인 복지에 국한된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보다 더 근원적인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 2. 노인 인권에 대한 무관심

인권은 세계 주류정치와 국제법에서 많이 언급되는 주제 중의 하나로서,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자나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상이한 관점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인권을 정의할 때, 태생부터 주어지는 권리, 평등권과 동등권에 대한 권리 혹은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정된 권리 등 어느 한 특정된 개념으로 한정 짓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국가인권위원회 편, 2009, 10; 권중돈, 2012, 1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세 혹은 권리(권중돈, 2012, 13)를 의미하며, 이는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힘[force]을 가리킨다(AI-Daraweesh, 2020, 1). 그러므로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와 요구할 권리,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최소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를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사회복지의 영역’에서의 노력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질병, 빈곤, 차별, 폭력, 고독, 소외, 교육, 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돕는 것과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등이 있다(권중돈, 2012, 36).

그렇다면 인권과 관련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당연히 모든 인간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사회적 구조 속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며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약육강식과 신자유주의 사회, 자본주의의 신경제정책 또는 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자들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약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위치에 놓인 자들로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법적 지위와 권리가 침해되거나 박탈당하는 경험을 겪는다(임춘식·윤지용, 2012, 279).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노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 관한 관심은 여타 취약계층에 비해 지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2021년에 실시한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KOSIS, 2022)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제1순위가 장애인 인권(16.7%)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성평등(15.3%)과 혐오·차별예방(15.3%),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14.8), 노동인권(14%)으로 나타난다. 그에 반해 노인 인권은 5.7%로 매우 저조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10.

7%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2년~2023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에서 취약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표 2). 물론 한국 사회에서의 취약 집단의 인권 존중도에서 여성이나 아동·청소년과 노인의 인권 존중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표 2). 그러나 2021년 대비 2022년의 인권 존중도의 증감률을 살펴보았을 때, 다른 두 세대에 비해 노인의 인권 존중도의 경우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편차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나 아동·청소년의 존중도에 대한 전년 대비 부적 응답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 사회에서 취약 집단의 인권 존중도

단위명: %

연도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매우 존중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매우 존중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매우 존중	존중 되는 편	존중 되지 않는 편	전혀 존중 되지 않음
2021	11.2	71.5	16.4	0.8	12.8	67.5	18.7	1.0	10.4	61.8	25.9	1.9
2022	10.0	74.6	14.9	0.5	12.1	69.0	18.0	1.0	8.4	62.6	26.9	2.1

출처: KOSIS, 2022~2023 우리나라에서 취약 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를 재구성함

과연 우리 사회가 노인 인권을 시급하지 않은 주제로 치부해도 되는가? 왜 우리 사회는 취약 집단 중 유난히 노인의 인권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노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받으면서 존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노인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받고 존중받지 않더라도 노년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노인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더욱 시급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우리 사회가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노년에 맞닥뜨리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빈고(貧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고독고(孤獨苦)라는 4가지 고[苦]이며(한정란, 2007, 35-36), 이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도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오늘날 노인이 경험하는 4고[苦]는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누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노인이다. 문제는 단지 우리 사회가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것에 있다.

### 3. 노인 인권에 관한 이해

전 세계가 노인 인권에 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UN의 노인 원칙이 천명되면서부터이다(한승진, 2010, 294; 김재경, 2014, 6).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부양의식의 약화와 첨단기술산업의 발달로 인한 부적응, 능력 중심의 사회로 인해 노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상실되면서 노인 소외, 노인 고독, 노인 빈곤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 의식과 예방 방안으로 노인 인권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김재경, 2014, 6). UN의 노인 원칙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 인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이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존과 관련된 독립과 보호, 존엄성으로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위험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활동과 관련된 참여, 자아실현으로서, 노인이 사회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승진, 2010, 294-295). 노인 인권은 인간의 생존 및 활동과 관련된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네 가지 구성 요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21-29). 첫째, 노인에 관한 사고의 전환이다. 노인을 '의존적이고, 피동적이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온전한 권리를 가진 적극적인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노년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약자가 된 노인 세대의 노고와 헌신,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이다. 셋째, 노년에 발생하는 문제 예방 및 해결,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욕구도 만족시키는 인식의 변화이다. 넷째, 노인의 인권신장(人權伸張)을 위해서는 나이를 초월한 세대 간의 상호존중, 상호연대와 호혜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이다.

그런데 UN이 노인 인권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고 강조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은 노인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 비록 노인 인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LAWnB, 1987)를 통해 노인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유



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노인 인권이라는 명시만 하지 않았을 뿐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교육기본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노인의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책임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임춘식, 2007: 김재경, 2014에서 재인용). 비록 노인 인권에 관련된 법은 없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법 조항을 통해 우리나라는 노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 온전하게 시행하는 것에 있다.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노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지닌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존중과 대우, 보호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임춘식·윤지용, 2012, 294; 김정희, 2018, 211).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단순히 법과 제도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해 명명할 것이 아닌 더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년에 경험하는 빈곤, 차별, 소외, 고독, 학대, 착취, 방임, 무위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여, 노인의 인간다운 권리와 보호,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16; 이은성, 2017, 165).

### Ⅲ. 노인 인권교육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접근

노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노인 인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김정희·박은혜, 2021, 259). 이를 위해 본 연구는 UN의 노인 원칙을 토대로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노인 인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자 한다.

#### 1. 자기 존엄성 교육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은 깊은 내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이다(오방식, 2017, 383).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인간관계의 기본 표준이 된다(Al-Daraweesh, 2020, 5-6). 인간 존엄성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상실될 수 없는 지위이자 권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오방식, 2017, 392; Marcus, 2014). 즉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공동체 각 구성원이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규정되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구

성원의 존재론적인 근원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Al-Daraweesh, 2020, 5). 그러므로 인간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도덕적 의무나 법적인 권리라는 도덕적이고 내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Marcus, 2014, 27). 또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타자를 잠재적인 주체이자 목적으로 인식해야 하며(Snauwaert, 2019, 2), 자신과 타인을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Thomas, 2014, 218). 인간을 주체로써 인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인권이다. 이러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가치를 정의, 권리, 평화 등과 일치시키는 것과 동시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치로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이 더욱더 나은 삶과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Al-Daraweesh, 2020, 6).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을 주체로써 인정하기보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의 상호관계에서 자주 발견된다(Al-Daraweesh, 2020, 6). 노년에 맞닥뜨리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병약 상태, 사회적 역할의 축소와 상실의 상황 등은 종종 노인을 경제적인 의존 형태로 전락하게 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 내 학대와 사회 내 폭력 등은 약자인 노인이 자신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한승진, 2010, 295). 이는 노인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자기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며, 무의미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자신을 스스로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온다(Louis, 1979; Harwood & Jacoby, 2000; 한승진, 2010에서 재인용).

그런데 인권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스스로 부족하거나 걸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권의 수혜 카테고리 안에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즉 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존중받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사회, 정치, 문화적 공정성, 호혜성,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구조 안에 포함되었는가로 나뉜다는 것이다(Forst, 2012). 그러므로 R. Forst(2012)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을 '타당성 주장의 수신자 또는 작성자' 혹은 '자기 생각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이해하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호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때 성별, 나이, 학력, 재화 수준 등은 중요하지 않다. 모든 구성원 개개인의 자기 이해, 상황과 세계관에 맞춰 가장 이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Habermas, 1994).

그렇다면 노년에도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존엄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사실을 통해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를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고로부터 시작된다(임춘식·윤지용, 2012, 294). 이를 위한 자기 존엄성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제한다. 첫째, 자기 존엄성 교육은 학습자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현실에 대해 가르친다(William,

2021, 81). 이는 노인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들이 만들어온 역사를 기초로 변화하는 현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인 변화는 노인이 젊은 시절에 만들어온 결과물이라는 주체적 가르침을 통해 노인이 긍정적으로 자기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자기 존엄성 교육은 편견에 도전하고 변화의 주체가 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노인의 수동적인 적응 문제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자기 존엄성 교육은 노인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변화하는 시대사조에 어떻게 주체적으로 적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지향적인 습성에서 벗어나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노인이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편견에 대해 부당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자기 존엄성 교육은 노인 스스로가 '존중받는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돕고, 부당한 현실에 맞부딪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 권력, 인권 시스템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문제 증상을 포착하도록 돕는다(Bajaj, 2017, 91).

셋째, 자기 존엄성 교육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범위를 기준으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같은 환경에서도 주어진 정보와 경험,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나는 개인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지식과 기술, 정보와 경험 등은 내 안의 규범과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노인이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김정희, 2014, 53-54). 이를 통해 타자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받기 위한 정당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Al-Daraweesh, 2020).

## 2. 인생공감교육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부양자에서 피부양자로 물러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은 병약자로 규정되어 왔다(한승진, 2010, 293; 권중돈, 2012, 26-27). 노인을 피동적인 존재로 정의하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비생산적인 존재, 무능력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이다(한승진, 2010, 295). 변화되는 사회 및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인, 가족관계의 해체와 파편화 및 유연화에 따른 소외당하는 노인 그리고 경제 중심의 산업사회 및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생산

성과 공헌도가 낮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은 여타 세대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이는 노인을 심리적 무기력과 사회적 의존성을 지닌 세대로 간주하게 했으며, 그 결과 노년은 ‘무의미한 인생’ 또는 ‘쓸모없는 인생’으로 명명되고 있다(한승진, 2010, 292).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존재론적 의미의 상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현재 노인을 ‘꼰대’, ‘툭딱’, ‘연금충’, ‘노인충’, ‘늙은이’ 등(김난예 외 8인 편저, 2019, 261; 김정희, 2021, 164)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씌우는 것은 비단 그들이 걸어왔던 삶의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자 도덕적으로 평등한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별, 나이, 지위,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사회적 기여도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평등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다(Al-Daraweesh, 2020). 그러므로 노인의 삶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수정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공감과 존중,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해 세대 간의 관계 회복(장정은, 2018, 512)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공감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깁슨과 그랜트(Gibson & Grant)가 교수자는 교육할 때, 학습자에게 수영하는 물을 보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Bajaj, 2017, 225)고 주장한 것에 근거하여 노인의 인생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오늘날 미친 영향을 학습함으로써 노인의 삶에 대해 재이해를 도와야 한다. 또한 탈맥락화된 학습으로써 학습자가 문화적 관행이나 관습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인권은 문화 및 문화적 관행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이다(Al-Daraweesh, 2020). 둘째, 마치 강자가 약자의 결핍된 사고와 도덕성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타 세대가 노인 세대를 ‘결핍된 존재, 약자이자 피동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사회적 강자인 그들이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발생하는 힘의 역동성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는 권력 역학에서 있어 노인의 이미지와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노년기 내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Al-Daraweesh, 2020, 4-5). 그러므로 ‘인생공감교육’은 노인에 대한 불공정한 사회구조와 관행이 노인에 대한 직접적 폭력 혹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Galtung, 1990, 291-292). 셋째, 노인 문화나 전통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그에 따른 구성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교육’을 촉진해야 한다(Habermas, 1994, 162). 비단 노인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넘어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Rubin & Silva, 2003)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노인과의 관계를 포함한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Foley, 2021, 83).

이처럼 “노인 인생 공감 교육”은 학습자가 노인의 관점을 배우고 노인을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이다. 노인의 인생 안에 잠재된 억압과 편견에 관한 서술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의 상황적 현실로 들어가서 경험함을 통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선입견을 재규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늙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노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편견에 대해 가르치고, 노인의 역사를 학습자들의 삶과 마주하게 도와 삶의 다양성을 증진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노인에 대해 추상적으로 가르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생생한 경험을 노인의 삶과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과거 역사와 마주하도록 이끌 것이다(Foley, 2021).

### 3. 상호존중교육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은 좁아질 수밖에 없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망이 더 좁아지게 된다. 그런데 타자와 관계를 맺을 기회와 상황이 줄어들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다. 노년에 좁아진 타자와의 관계망도 노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게 하는 데 한몫하고, 인권 존중과 보호를 침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도덕규범이기도 한 타자를 존중하는 사고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Forst, 2012, 59; Snauwaert, 2019, 3). 이는 기독교의 황금율(Gold Rule)인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눅 6:31) 혹은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에 기초하는 것이다(조중빈 편저, 2016, 355).

“상호존중교육”은 자신과 타자에 대한 이해의 확장과 더불어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 내에서와 그 문화를 넘어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한다(Habermas, 1994, 162). 이는 노인과 타 세대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와 경청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게 한다. 이때 ‘상호존중교육’은 노인에 대한 타 세대의 이해만을 요구하진 않는다. 노인도 도덕적인 자율성을 지닌 자로써 자신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타 세대와 그들의 능력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Al-Daraweesh, 2020). 왜냐하면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주체이자 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지닌 존재로서, 타자와의 상호주의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 간에 주어진 의무를 완수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Forst, 2012). 또한 노

인은 타자와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선 자기 생각과 삶의 양식에 비추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했을지라도 이를 변형할 줄 알아야 한다(Al-Daraweesh, 2020, 7) 물론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에 노인만이 적응하고 맞춰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노인 스스로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면, 타자와 정당한 이유를 주고받을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Forst, 2012, 38). 이때 도덕규범의 정당성과 타당성의 기준은 개인의 합리적인 도덕적 판단의 전제인 개인의 이성, 즉 내적 주관적 반성의 과정에 기인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Snauwaert, 2019, 3), 서로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Al-Daraweesh, 2020, 8).

따라서 “상호존중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노인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존중하며, 그에 따른 주장에 대한 맥락적 논리를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생각과 행동의 정당화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간에 합리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기 결정이 가능하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능력도 존중해야 한다. 브루거만(Brueggemann, 1985)의 “분파주의적 해석학의 타당성”에서의 주장을 빌린다면, 노인도 본인의 문화뿐만 아니라 대면하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상호 간의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맥락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의 이유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노인 인권에 대한 정당화의 이유를 제공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과정까지 나아가야 한다(Al-Daraweesh, 2020).

둘째, 하버마스(Habermas, 1994)에 의하면, 학습자의 세계관에는 다양한 자기 이해와 연관된 상황에 대한 맥락주의적 해석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상호존중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해석적 관점에 민감하면서도 비강압적으로 이해하고, 상호 조정하는 것을 강조한다(Habermas, 1994, 229). 그러므로 노인 세대와 타 세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권리에 대한 보편성과 일반화가 인정될 수 있는 상호 간의 비판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Al-Daraweesh, 2020, 10). 이때 이념적이며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노출된 노인 인권 유린 및 부정과 관련된 폭력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상호존중교육”은 노인 인권에 대한 부정, 학대 및 축소 등에 관한 잘못된 정당화에 대한 비판적 대화 과정에 다양한 세대들을 참여시킨다(Snauwaert, 2019). 이를 통해 타 세대가 강자와 약자의 관계, 지배와 억압의 관계 추구를 통해 노인의 인권을 부정 또는 학대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를 시도한다거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이념적 행위를 비판하는 사고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은 노인이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건강한 영성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다.

#### IV. 나가는 말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노인의 사회 적응 문제, 빈곤 문제, 삶의 질 저하 문제 및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에 한국은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활동의 장려, 공동주거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노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 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다. 바로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겪는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늙어가는 사회가 가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늙어가는 사회 속 ‘개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고로 고령화의 주범 처럼 여겨진 노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에는 노인이 대한 공경이 덕목 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노인을 소모적인 존재,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한 나머지 그들이 마땅 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성적이며, 자율적이고, 도덕적이며,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노인도 동등한 이해와 인정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이 타자와의 관계 안에 상호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노인 인권’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노인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그들의 문제들을 직시하며,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특별히 노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노인의 인권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노인 인권에 대한 보장과 강조를 위한 교육적 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가 주장한 노인 인권 교육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존엄성 교육이다.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자기 존엄성 교육을 통해 노인이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이자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요구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둘째, 노인 인생

에 대한 공감 교육이다.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상호이해가 부족함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이해를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정과 공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상호존중교육이다. '타자에 대한 이해'는 곧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보편성과 일반성을 인정하는 비판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적인 관점과 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제시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인해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방법론적인 접근 교육이라든지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인력양성 등은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성규 (2022. 12. 21). 2022년 종교인구 현황, 개신교 20%·불교 17%·천주교 11%. 자유일보,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8>, 추출일 : 2023. 02. 05.
- [Kwak, S. K. (2022. 12. 21). Status of religious population in 2022, 20% Protestant, 17% Buddhist, and 11% Catholic. Jayupress]
- 국가인권위원회(편) (2009). **노인분야 인권교육교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ed.) (2009). *Human Rights education textbook for the elderl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국가인권위원회 (2022. 12. 20). 인권인식실태조사.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9&tblId=DT\\_129001\\_D007&vw\\_cd=MT\\_ZTITLE&list\\_id=B\\_2\\_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9&tblId=DT_129001_D007&vw_cd=MT_ZTITLE&list_id=B_2_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추출일 : 2023. 01. 10.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22. 12. 20). A Survey of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KOSIS]
- 국가인권위원회 (2023. 4. 25).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9&tblId=DT\\_129001\\_A008&vw\\_cd=MT\\_ZTITLE&list\\_id=B\\_2\\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25EC%2582%25AC%25ED%259A%258C%25EC%259D%25BC%25EB%25B0%2598%2520%253E%2520%25EC%259D%25B8%25EA%25B6%258C%25EC%259D%2598%25EC%258B%259D%25EC%258B%25A4%25ED%2583%259C%25EC%25A1%25B0%25EC%2582%25AC%2520%253E%2520%25EC%259D%25B8%25EA%25B6%258C%2520%25EC%259D%25B8%25EC%258B%259D%25EC%259A%25B0%25EB%25A6%25AC%25EB%2582%2598%25EB%259D%25BC%25EC%2597%2590%25EC%2584%259C%2520%25EC%25B7%25A8%25EC%2595%25BD%25EC%25A7%2591%25EB%258B%25A8%25EC%259D%2598%2520%25EC%259D%25B8%25EA%25B6%258C%25EC%259D%25B4%2520%25EC%25A1%25B4%25EC%25A4%2591%25EB%25B0%259B%25EB%258A%2594%2520%25EC%25A0%2595%25EB%258F%2584](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29&tblId=DT_129001_A008&vw_cd=MT_ZTITLE&list_id=B_2_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25EC%2582%25AC%25ED%259A%258C%25EC%259D%25BC%25EB%25B0%2598%2520%253E%2520%25EC%259D%25B8%25EA%25B6%258C%25EC%259D%2598%25EC%258B%259D%25EC%258B%25A4%25ED%2583%259C%25EC%25A1%25B0%25EC%2582%25AC%2520%253E%2520%25EC%259D%25B8%25EA%25B6%258C%2520%25EC%259D%25B8%25EC%258B%259D%25EC%259A%25B0%25EB%25A6%25AC%25EB%2582%2598%25EB%259D%25BC%25EC%2597%2590%25EC%2584%259C%2520%25EC%25B7%25A8%25EC%2595%25BD%25EC%25A7%2591%25EB%258B%25A8%25EC%259D%2598%2520%25EC%259D%25B8%25EA%25B6%258C%25EC%259D%25B4%2520%25EC%25A1%25B4%25EC%25A4%2591%25EB%25B0%259B%25EB%258A%2594%2520%25EC%25A0%2595%25EB%258F%2584), 추출일 : 2023. 01. 10.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23. 4. 25). The degree to which the human rights of vulnerable groups are respected in Korea. KOSIS]
- 권금주 (2016).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월간 복지동향**, 211, 39-42.  
 [Kwon, K. J. (2016). Exploring the direction of elder abus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senior citizens' human rights. *Monthly Welfare Trends*, 211, 39-42.]
- 권중돈 (2012). **인권과 노인복지실천**. 서울: 학지사.  
 [Kwon, J. D. (2012). *Human rights and welfare practices for the elderly*. Seoul: Hakjisa.]
- 김난예 외 8인(편) (2019). **고령사회의 기독교 노인교육**. 서울: 기독교.  
 [Kim, N. Y. et al. 8 (ed.) (2019). *Christian elderly education in aged society*. Seoul: Kidokhankyo.]
- 김재경 (2014). 현대사회에 노인문제와 노인인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경영연구** 1(1), 1-18.
- [Kim, J. K. (2014). A study on senior human rights in an aging society.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1(1), 1-18.]
- 김정준 (2017). 21세기 한국 사회와 노인 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50, 155-199.  
 [Kim, J. J. (2017). Korean Society in the 21th century and new tasks and directions for pastoral care for older generation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155-199.]

- 김정희 (2012). 감리교회의 고령화에 대한 인식도와 성경적 효에 대한 교육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29, 321-336.
- [Kim, J. H. (2012). Awareness of the aging of Methodist Church and its educational consideration of biblical filial pie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9, 321-336.]
- 김정희 (2014). 디지털 시대, 공감과 소통의 도구로서의 효 이해. **효학연구**, 20, 43-60.
- [Kim, J. H. (2014). Digital society, understanding of Hyo as a tool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20, 43-60.]
- 김정희 (2017). 노인빈곤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50, 233-259.
- [Kim, J. H. (2017). Christian reflection on the elderly pover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233-259.]
- 김정희 (2018).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교회 대응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6, 209-239.
- [Kim, J. H. (2018). Studies on how korean churches meet the challenges of an aged socie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155-199.]
- 김정희 (2018). 노인 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사회통합적 효의 관점에서-. **효학연구** 27, 133-150.
- [Kim, J. H. (2018). How to address the issue of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 A view on the roles of hyo for social integration -.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27, 133-150.]
- 김정희 (2019). 반응적 공동체주의에 근거한 효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60, 121-151.
- [Kim, J. H. (2019). Understanding hyo in the context of responsive communitarianism.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121-151.]
- 김정희 (2021).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기독교 노인교육의 방향. **신학과현장** 31, 151-172.
- [Kim, J. H. (2021). The direction of christian senior education to prepare for future society. *Theology & Context*, 31, 151-172.]
- 김정희·박은혜 (2021). 코로나 시대 기독교 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6, 243-272.
- [Kim, J. H. & Park, E. H. (2021). A study on the method of educational ministry for the religious life of the christian elders during the corona perio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6, 243-272.]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 361-391.
- [Kim, J. H. (2009). The change in the status of older people in Korea in terms of ageism. *Journal of Society and History*, 82, 361-391.]
- 김주현 외 4인 (2011). 국제법상에 나타난 보편적 인권규정과 노인인권. **법과 사회** 40, 249-278.
- [Kim, J. H. et al. 4 (2011). The human rights of elderly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human rights principles in international laws.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40, 249-278.]
- 김지영 (2005). 세대가 갈등과 노인학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88.
- [Kim, J. Y. (2005). A Study on the elder abuse in generational conflict. *Criminal Policy Institute research series*, 13-188.]
- 나달숙 (2013).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6(3), 23-55.
- [Na, D. S. (2013). A study on the protect of the human rights about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minority and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Journal of Human Rights & Law related Education*, 6(3), 23-55.]
- 노원석 (2010). 가족부양에 관한 한국노인과 자녀세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모델. **개신논집**, 10, 257-

273.

- [Roh, W. S. (2010). A communication model for the solution of generation conflict between the Korean elderly and their children about family support. *Journal for the Study of Reformed Theology*, 10, 257-273.]
- 대성 (편) (1980). **예기**. 권오돈 역. 서울:홍신문화사. (원저 불명)
- [Daesung. (ed.) (1980). *A book of courtesy*. Translator : Kwon, O. D. Station. Seoul: Hongsinmunhwasa. (Original article published unknown)]
- 대한민국 헌법 (1987. 10. 29). 대한민국헌법 제10조. LAWnB,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44\\_10](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444_10), 추출일 : 2023. 01. 10.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1987. 10. 29).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LAWnB]
- 보건복지부 (2022. 8. 17). 노인학대현황: 학대피해노인 제공서비스 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5072&vw\\_cd=MT\\_ZTITLE&list\\_id=117\\_11767\\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5072&vw_cd=MT_ZTITLE&list_id=117_11767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추출일 : 2023. 01. 10.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8. 17). Elder abuse status: Current status of services provided to abused seniors. KOSIS]
- 오방식 (2017).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적인 삶을 위한 영성훈련에 대한 연구. **신학과실천**, 57, 371-399.
- [Oh, B. S. (2017). A study of spiritual exercises for a non-violent life according to Thomas Merton. *Theology and Praxis*, 57, 371-399.]
- 이경남 (2019. 7. 15). 노인빈곤율, OECD국 중 가장 높아...교회관심 요청.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160942036>, 추출일 : 2023. 02. 05.
- [Lee, K. N. (2019. 7. 15).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a request for church attention. Korean christian official gazette]
- 이선희·김미리·정순돌 (2019). 청년세대의 연령주의 유형화 및 연령주의 유형과 세대갈등·노인복지정책 인식의 관계. **한국노년학**, 39(4), 825-846.
- [Lee, S. H., Kim, M. R. & Chung, S. D. (2019). Identifying subgroups of ageism among young adults, and its relationship to perceptions of generational conflict and elderly welfare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9(4), 825-826.]
- 이은성 (2016). 고령화 한국사회와 교회 노인교육의 복지적 접근 및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7, 161-188.
- [Lee, E. S. (2016). Aging Korean society and a welfare approach to church senior education.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7, 161-188.]
- 임춘식·윤지용 (2012). 노인의 노인인권개념 인식과 침해 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56, 275-298.
- [Rim, C. S. & Yun, J. Y. (2012). A study on the awareness of elderly people o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abus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6, 275-298.]
- 장정은 (2018). 인간성 회복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 **신학과 실천**, 58, 299-524.
- [Jang, J. E. (2018). A psychoanalytic understanding of the recovery of humanity. *Theology and Praxis*, 58, 299-524.]
- 정필운·차재홍 (2021). 인권교육에서 타자 이해의 의미와 현황, 과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77-138.
- [Jung, P. W. & Cha, J. H. (2021). Meaning, current status, and tasks of understanding others in human right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Conference*, 177-138.]

조중빈 편(2016). *혼자서도 잘 읽는 안심논어*. 서울: 국민대학교. (원저 불명)

Cho, J. B. (ed.) (2016). *Analects that you can read well by yourself*. Translator Station. Seoul: Kookmin University. (Original article published unknown)]

한국기독교교육학회(편) (1997).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The Korean Societ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ed.) (1997).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Seoul: Korean Presbyterian Press.]

한승진 (2010). 노인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한국학* 33(3), 289-313.

[Han, S. J. (2010). Christian ethical meaning of elderly human rights and social hyo.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33(3), 289-313.]

한정란 (2002). 노인교육과 세대통합: 세대공동체 교육.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5(1), 91-108.

[Han, J. R. (2002).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 educational gerontology: The community of generations.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5(1), 91-108.]

한정란 (2007). *노인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Han, J. R. (2007). *Educational gerontology*. Seoul: Hakjisa.]

Al-Daraweesh, Fuad. (2020). Teaching human rights: Toward a kingdom of ends. *Education Sciences*, 10, 1-11.

Bajaj, M. (ed.) (2017). *Human rights education: Theory, research, praxis*.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Brueggemann, W. (1985). II Kings 18-19: the legitimacy of a sectarian hermeneutic.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7, 1-42.

Foley, William J. Jr. (2021). Suggestions for critical awareness, accountability and transformation in human rights education.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23(1), 78-90.

Forst, R. (2012). *The right to justification*.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Galtung, J. (1990). Cultural viole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27(3), 291-305.

Habermas, J. (1993). *Justification and application : Remarks on Discourse Ethics*. Translator : C. P. Cronin. Station. Massachusetts: MIT Press.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92)

Marcus, D., Jens, B. & Dietmar, M. (ed.) (2014). *The cambridge handbook of human dign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bin B. & Silva E. (ed.) (2003). *Critical voices: Students living school reform*.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Snauwaert, Dale T. (2019). The dialogical turn in normative political theory and the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Education Sciences*, 9(1), 1-7.

Snauwaert, Dale T. (ed.) (2019). *Exploring Betty A. Reardon's perspective on peace education: looking back, looking forward*. Berlin: Springer Press.